

한국과 덴마크의 민속 테이블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Danish Folk Tables.

최정신**

Jung Shin Choi

구나 솔뱅***

Gunnar Solvang

Abstract

It is thought as more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foreign countries' culture in the modern society, because the world is becoming closer day by da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mass-media. Cross-cultural study could play a role to give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understand foreign countries' culture easily.

In this respect, this study was planned to find out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Danish and Korean folk tables made and used before the 20th century, during the 18th-19th century, as a part of the comparative study of folk furni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f we could find something valuable between Danish and Korean folk furniture, because they are located very far away each other geographically with less cultural communication before.

There were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y between the folk tables of the two countries, an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s:

Firstly, there were many kinds of space-saving tables in Denmark, whereas only a few kinds of tables which could be removed easily after their usage were found in Korea..

Secondly, Danish folk tables were more emphasized on the function rather than decoration. Whereas Korean folk tables were smaller, lower and more decorative than Danish ones to fit their life-style of sitting on the floor.

Thirdly, many Danish folk tables were made of bare wood, while Korean ones were finished by transparent lacquer or vegetable oil. Stone tops of tables were rare in both countries.

* 이 논문은 최정신이 코펜하겐 소재,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 건축대학 가구디자인과에서 1994년부터 1995년 1년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의 일부로서, 연구의 전 내용은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 건축대학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 "A Comparative Study of Ornament in Danish and Korean Folk Furniture"에 실려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에서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덴마크의 여러 민속가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저자는 덴마크의 민속가구 연구를 위하여 덴마크의 여러 지방과 국립 박물관, 야외 민속박물관 등을 직접 답사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많은 가구 스케치와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특히 이 연구를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준 가구디자인과의 지도교수, 마노 구딕슨(Marno Gudiksen)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정회원, 한국가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Ph.D

*** Denmark Copenhagen Koge Museum Inspector, Mag.art

Lastly, there were common factors in the design of legs of folk tables in both countries. It was interesting that animal legs such as dog, tiger, cat, lion, and eagle were used for design motif of the table legs. But trestle leg, cross leg and gate leg were not found in Korean folk tables.

As a conclusion, throughout this study, it became obvious that life-styl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on the design of furniture.

Key word: Comparative study. Folk furniture. Table. Life-style. Design. Decoration. Function. Denmark. Korea. Drop-leaf. Space-saving.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는 가구와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가구가 없는 인간의 생활은 상상하기도 곤란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가구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욕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 주택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되는 반면, 농촌의 주택은 한 가족 내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가구는 도시 가구보다는 농촌 가구가 더욱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상류계층에서는 그들이 원하면 언제나 가구나 의복, 주택 등에서 외국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쉬웠지만 농가에서는 물건 한가지라도 튼튼하고 잘 만들어 몇 세대를 거치면서 물려쓰는 것이 상례였고, 일단 한번 집안살림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오랜 동안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고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한가지 물건을 오래도록 지니고 사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민속가구¹⁾는 물론 상류계층의 가구에 비하여

1) "민속가구(folk furniture)"와 "농촌가구(peasant furniture)"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여러번의 토의가 있었으나, 덴마크에서는 도시의 중산층가구와 농촌 가구 사이에 그 디자인과 사용재료 등에 있어서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농촌가구(peasant furniture)"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상류 계층에서 보다 세련된 디자인이나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는 예는 있으나, 그 차이가 덴마크의 경우처럼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두나라의 공통적인 용어로서 "농촌가구(peasant furniture)"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민속가구(folk furni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보다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보였지만, 그 디자인이나 제작방법에 있어서 외국이나 다른 지방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농부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복잡한 장식에 가리지 않고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쉬웠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가구는 상류계층의 가구못지 않게 그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었고, 바로 그 점이 민속가구의 중요성이었다. 민속가구는 상류계층의 가구에 비해서 지방마다, 또 나라마다 다르게 발달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그러한 점이 더욱 다른 나라 사이에 민속가구의 비교 연구가 가치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현대 세계는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외국과의 밀접한 교류를 가지게 되어, 근래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기 위한 비교문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종래에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적었던 한국과 덴마크 두 나라의 민속가구의 디자인, 구조와 기능상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특히 가구에 대한 동 서양의 비교문화적 연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첫째로, 한국에서는 조선조(AD. 1392-1910)에, 덴마크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제작되고 사용된 테이블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20세기 동안 교통과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달은 보다 "밀접한 세계"를 만들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화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비슷한 건축물과 가구 디자인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나라의 고유한 특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특징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대에 더 일찍이 제작되고 사용된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가구를 접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가구는 거의 18-1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8-19세기의 테이블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로, 테이블의 사용계층에 있어서 덴마크에서는 농촌에서 사용되던 테이블 만을, 한국에서는 농촌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민속가구의 테이블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상류계층의 가구가 좀더 섬세하고 값비싼 재료로 제작된 것이 사실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재료나 디자인에 있어서 상류계층의 가구와 농촌가구의 차이가 덴마크에서처럼 매우 현저하지 않았으나, 덴마크의 경우에는 농촌가구는 재료나 디자인, 장식방법에 있어서 도시의 상류계층의 가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대상지역은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포함시켰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질랜드(Zealand), 후넨(Funen), 유틀랜드(Jutland)를 그 범위에 포함시켰다. 덴마크의 주택이나 가구의 디자인은 덴마크 자체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남부와 서부지역, 특히 할랜드(Halland), 스캐니아(Skania), 블랙킨지(Blekinge) 지방과 노르웨이의 대부분, 홀랜드, 덴마크 유틀랜드에 인접한 독일의 북부 쉘레스비(northern Schleswig) 지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 사이의 전쟁을 통한 빈번한 국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덴마크가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하였다. 항공기술의 발달이 적었던 예전에는 바다를 통한 교통수단이 현대에서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덴마크의 지리적 위치는 북유럽과 유럽 본토와의 사이에서 해상교통

의 요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아마도 덴마크 이웃 나라들과의 사이에 쉽게 문화를 교환한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나라들에서도 덴마크의 민속가구와 비슷한 디자인을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2. 본 론

2.1 테이블의 발달.

(1) 덴마크의 민속 테이블.

15세기 이전의 테이블은 단지 트레슬(trestle) 위에 긴 판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중세의 주택은 방안의 중심에 테이블을 항상 배치해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므로 갑자기 손님이 오면 테이블을 즉시 조립하여 사용하고, 식사 후에는 치우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테이블을 "보드(board)"라고 부르고 또한 보드(board)가 식사와 관계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온 것이었다. 15세기 말이 되어서야 트레슬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아닌, 고정식 테이블이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부유한 가정에서는 흔히 린넨으로 된 식탁보를 덮어서 사용하였다. 15세기 말 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상판을 끌어내어 사용하는 테이블(extended table or drawing table)이 일반화 되었다. 상판의 한쪽이나 양쪽을 접었다가 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롭 리프 테이블(drop-leaf table)은 공간 절약용으로 고안된 매우 중요한 테이블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테이블들은 식당에서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식사 후에도 방 한가운데 그대로 펴 두었다.

16세기 중반에는 나무에 곡선의 나뭇잎 무늬를 조각하는 스트랩 워크(strap-work)가 테이블의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폭단처럼 값비싼 재료로 테이블 상판을 삼감하는 장식법이 부유층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17세기 초반 이후까지도 볼보스 다리(bulbous leg)에 바닥 근처에 고정된 스트레처(stretcher)가 있는 육중한 참나무(oak) 테이블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신식의 가정에서는 작은 테이블류가 선호되었다. 필요에 따라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선호되었다. 필요에 따라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이트 레그에 등근 상판을 가진 테이블 (gate-leg table)이 편리하여 많이 유행하였다. 17세기까지는 목재로 된 테이블 상판은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꿀벌 왁스(beewax)로 처리하였으나 17세기 말에 와서 바니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초에는 양질의 호도나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참나무에 그림을 그린 식탁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식탁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게이트 레그 (gate leg)로 만들어 특별한 행사 때에도 그 크기를 조절하여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한 세개의 받침대의 중심에 기둥 하나로 만들어진 필라 레그(pillar leg)에 등근 상판으로 된 테이블도 새로이 등장하였다.

식탁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테이블 종류가 사용되었는데, 도자기 테이블(china table), 아침 식사용 테이블(breakfast table), 면도용 테이블(shaving table), 사이드 테이블(side table), 서랍 테이블(commode table), 필기용 테이블(writing or library table), 세면용이나 화장용 테이블(toilet or dressing table) 등이 있었고, 이들은 흔히 서로 필요에 따라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19세기에는 빅토리아(Victoria) 양식의 볼보스 다리(bulbous leg)에 육중한 조각으로 많이 장식한 테이블이 사용되었고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된 상판을 끌어 내어 사용하는 테이블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2) 한국의 민속 테이블.

덴마크에 비하면 한국에는 적은 종류이기는 하지만, 5-6세기 경의 고구려 무용총 고분 벽화에서 두명의 여인들이 식탁에 음식을 받쳐서 들고 가

는 그림이 발견되어(그림1-1-A)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테이블을 사용한 증거를 찾아 볼 수 가 있었고, 테이블의 역사가 수납용 가구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16세기 경의 조선조 시대의 그림에서도 서당에서 글을 읽을 때 사용한 책상의 그림을 찾아 볼 수 있었다(그림 1-1-B).

한국에서도 식탁, 다과상, 책상, 연상과 같은 몇몇 종류의 테이블이 사용되었는데, 흔히 한국의 테이블은 그 정교한 디자인과 장식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최고의 품질을 가진 공예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식탁에는 주로 투각, 양각, 음각 등의 조각을 장식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상판은 가볍고도 단단하며 무늬결이 아름다운 목재를 사용하여 그 무늬를 그대로 살리고 다리 부분에만 많은 장식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식탁은 서양의 식탁에 비하면 그 크기도 훨씬 작고, 높이도 낮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그 크기와 형태는 역사를 통하여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필기용이나 책을 읽을 때 사용되었던 테이블인 경상은 원래 불교의 경전을 읽을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불교가 국교로 숭상되었던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연상은 고려 때 버루를 담아 두던 상자의 형태로 부터 발달된 것으로서, 고려 시대의 버루 상자는 대부분 나전칠기로 장식되었던 단순한 상자 형태였던 것이 나중에 조선 시대에 들어 와서 다리가 달린 연상으로 발전되었다.

한국의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50cmx40cm로 작았고, 높이가 25-30cm로 낮아서 이동하기 간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항상 방 바닥을 비워 놓아 융통성있게 사용해야 하는 한국인들의 좌식 생활양식에 맞게 발달되었기 때문이었다.



A 고구려 무용총의 고분벽화



B 조선시대의 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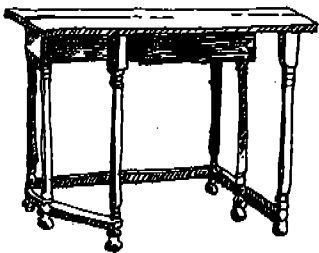
그림 1-1. 그림에 나타난 한국 테이블의 역사

2.2 테이블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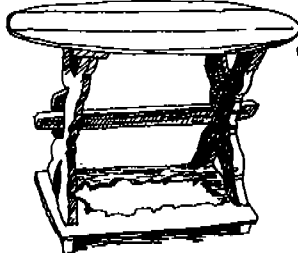
덴마크에서는 단순한 통나무 집에서 부터 고급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이 사용되어 그 종류가 대단히 많았다. 테이블의 디자인과 마감은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는데 농가의 테이블은 사각형의 드롭 리프(drop-leaf) 테이블로 장식이 없이 육중하고 둔탁해 보이는 반면, 상류 가정의 테이블은 흔히 둥근 형태의 상판에 날씬한 디자인의 다리로 되어 있고 상판 전체를 꽃무늬로 칠하여 장식하였다.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레슬 다리(trestle leg), 크로스 다리(cross leg) 또는 기둥형의 다리(pillar leg)를 가진 긴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였다(그림 1-2-A, B, C). 이러한 테이블에는 흔히 상판 밑에 서랍이 달려 있었고, 서랍 안에는 포크, 나이프, 스푼과 같은 식사용 도구들을 담아 두거나 때로는 채소나 감자를 넣어 두기도 하였다. 농가의 실내 바닥은 흙 바닥이었으므로 이런 종류의 테이블에는 흔히 발 받침대가 달려 있었고, 긴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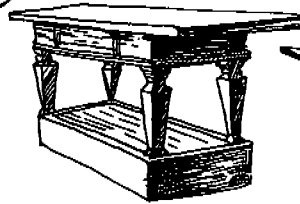
의 짧은 쪽에는 남편이 앉고 긴 쪽에는 다른 일꾼들이나 가족들이 앉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테이블은 창문이 있는 벽에 붙박이로 만든 긴 벤치와 함께 창가에 배치하여, 자연 채광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밑에 찬장이 달린 테이블은 공간 절약용 가구의 좋은 실례로서, 찬장 안에는 접시나 조리용 도구들을 넣어 두었다. 찬장이 달린 테이블은 무거워서 이동할 수가 없었고, 때로는 방안의 한 가운데 배치하여 칸막이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그림 1-3). 드롭리프(drop-leaf) 식탁은 덴마크의 농가에서 흔히 눈에 띄는 가구로서, 접으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필요할 때에만 늘여서 사용할 수 있어서 실내 공간이 제한되고 다목적으로 사용되던 덴마크 농가에 아주 적합한 가구였다. 이러한 테이블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한 조의 의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는 식탁은 신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서 가난한 농부들은 접는 식탁보다는 여전히 둔탁한 트레슬 다리(trestle leg) 위에 두툼한 소나무 상판을 얹어서 만든 테이블을 작업용과 식사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A 게이트 레그



B 크로스 레그



C 필라 레그의 테이블

그림 1-2 여러 종류의 테이블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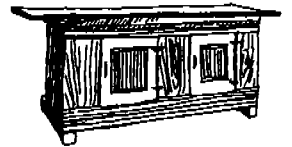


그림 1-3 찬장달린 테이블

체스트 겸용 테이블(chest-cum table)(그림 1-4)은 테이블과 비슷한 모양으로 매우 무거웠고, 체스트(chest) 안에는 가재도구들을 넣어 두고 사용하였다. 책상은 일반적으로 식탁보다 작았고 상판 밑의 서랍 안에는 필기도구들을 넣어 두었다(그림 1-5). 그리고 흔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의자나 테이블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박스 시트 테이블(box-seat table)도 있었고(그림 1-6), 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판을 세워서 스

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린 테이블(screen table)도 있었다(그림 1-7).

테이블 상판의 모양은 보통 원형보다는 사각형이 많았고, 재료는 농가에서는 주로 마감처리하지 않은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부유한 농가에서는 색칠한 나무, 흔하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돌이나 타일도 사용되었다.

이상의 덴마크의 테이블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가. 긴 테이블—트레슬 다리(trestle leg), 크로스 다리(cross leg), 필라다리(pillar leg).

나. 찬장 겸용 테이블(table with a cupboard below).

다. 체스트 겸용 테이블(chest-cum table).

라. 책상(writing table).

마. 특수형태의 테이블—박스 시트 테이블(box-seat table).

—스크린 테이블(screen table).

바. 드롭리프 식탁(drop-leaf dining table).



그림 1-4 체스트 겸용 테이블

그림 1-5 필기용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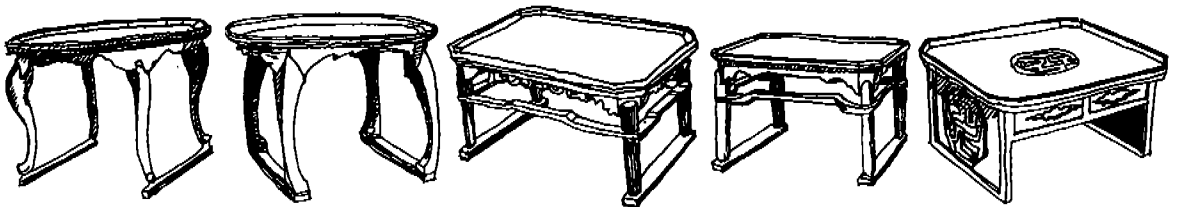
그림 1-6 박스 시트 테이블

그림 1-7 스크린 테이블

한국에서는 식탁, 책상, 다과상, 연상과 같은 많지 않은 몇 종류의 테이블이 사용되었다.

한국사람들은 서양인들과 매우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하기보다는 혼자서 식사하는 것이 상례였고, 특히 신분이 높을수록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한 가정 내에서도 하나의 커다란 식탁보다는 여러개의 작고 가벼운 개인용 식탁이 필요하여 여러 종류의 개인용 식탁이 많이 발달하였다. 개인용 식탁은 식사시에 보통 주인의 방으로 운반하여 사용되었으나, 가족 행사시에는 특별히 함께 모여서 식사하였고, 일반적으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 때에도 함께 식사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사는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모여서 하였으며, 식탁은 사각형의 교각상이나 둥근 형태의 두레반이 사용되었다. 식

탁은 보통 가볍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고 방수가 되도록 표면에 투명한 옷칠을 하였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식탁에 나전칠기로 상감하고 그 바탕에 옷칠을 하였으나, 가난한 가정에서는 값비싼 옷칠 대신에 식물성 기름을 칠하기도 하였다. 식탁의 상판 형태는 사각형, 원형, 육각형이 많았고, 때로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연꽃 모양으로 조각하기도 하였다. 식탁의 다리는 서양에서 흔히 사용하던 사자나 독수리 발 모양 대신에 개 다리, 고양이 다리, 호랑이 다리 모양을 곡선 형태로 우아하게 조각하여 장식하였다(그림 1-8-A, B). 식탁의 디자인은 제조되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흔히 그 제조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식탁의 이름을 불렀다. 가장 유명한 식탁은 해주, 나주, 충주, 동영 지방에서 만들어졌다(그림 1-9-A, B, C).



A 호랑이다리 상 B 개다리 상
그림 1-8 식탁의 다리 모양

A 동영반 B 나주반 C 해주반
그림 1-9 여러지방의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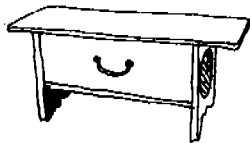
책상(서안)은 남자들이 사랑방이나 서재에서 많이 사용하였는데 상판 밑에 한 두개의 서랍이 달려 있었고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았다. 다른 큰 가구들이 벽에 붙여서 배치되는 반면에 책상은 작고 낮아서 방의 한 가운데, 사용 후에도 치우지 않고 주인과 손님 사이에 상설 배치해 놓고 사용하였다. 책상의 모양은 역시 사각형이었고 책상에는 경상과 범상의 두 종류가 있었다. 경상은 원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 승려들이 경전을 읽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상류층 가정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경상은 상판의 양쪽 끝이 두루마리형으로 말려 올라가고 다리는 식탁과 마찬가지로 곡선형으로 우아하게 조각이 되었으며 상판 밑에 서랍이 달려 있었다. 범상은 경상과 달리 평평하고 직선형의 상판과 다리를 가진 단순한 형

태로서 보통 서민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책상의 재료는 통나무를 켜서 만들었으며, 다른 사랑방 가구와 마찬가지로 옷칠이나 장식을 많이 하지않았다. 소나무가 책상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호도나무 등도 쓰였다. 또한 책상에는 백등이나 무쇠로 된 서랍의 손잡이와 같은 기능적인 용도 이외에는 금속 장식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그림 1-10-A, B).

다과상은 흔히 손님에게 다과나 술을 대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것은 보통 식탁보다 작았으며 보다 더 아름답게 조각하거나 장식하였다. 다과상의 상판은 사각형보다는 다각형이나 연꽃 모양으로 많이 만들었고, 다리는 곡선으로 만들거나 판에 조각을 한 형태로 만들었다(그림 1-11).



A 경상



B 범상

그림 1-10 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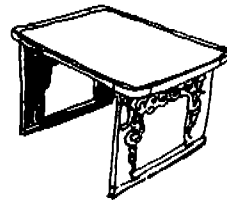


그림 1-11 다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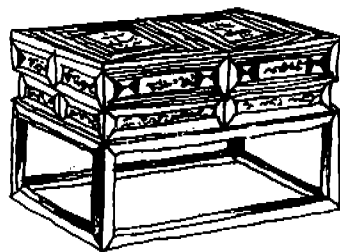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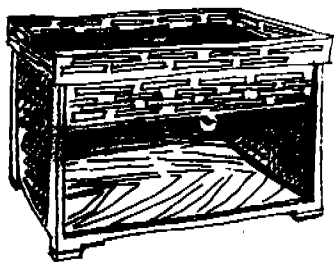


그림 1-12 연상

연상은 사랑방에서 남성들이 책상 옆에 두고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 필기용 도구로 중요시 되던 벼루, 먹, 종이, 붓을 넣어 두었다. 연상은 원래 고려시대에 벼루를 담아 두는 뚜껑없는 단순한 상자에서 발달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종이, 붓, 먹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되었다. 연상에는 다리가 있는 형과 상자 형의 두 종류가 있

었는데 보통 다리 밑에 판을 대어서 다리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연상은 상판에는 벼루를, 서랍에는 필기 용구를 넣어 두는 용도로만 쓰였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에 비하여 그 크기가 가장 작았다. 연상은 무거운 벼루를 놓고 쓸 수 있도록 든든해야 했기 때문에 재료로 배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을 많이 사용하였고, 책상 옆에 두고 사용

하였으므로 책상과 디자인, 구조나 색이 잘 조화 되도록 만들었다. 연상은 사랑방 가구 중에서는 가장 장식의 많이 한 가구로서, 자개, 대나무, 꽃 모양의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금속 장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에 불교에서 유래한 만자(卍字)무늬, 구름 무늬, 장수를 상징하는 무늬들이 상판이나 다리 부분에 음각하였다(그림 1- 12).

한국에서 테이블의 장식으로 흔히 사용된 무늬는 대나무, 연꽃, 인당초, 국화, 난초, 포도와 같은 식물이나 꽃 무늬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들 이외에도 남성용 가구에는 장수, 다복, 다남을 상징하는 한자를 음각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었다. 금속 장식은 손잡이나 측판의 들쇠와 같은 실용적인 기능의 목적 이외에는 장식적인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상감이나 색칠을 하는 것보다는 음각이나 양각으로 조각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었다.

이상의 한국의 테이블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았다.

가. 식탁--개인용.

공동용.

나. 책상--경상.

범상.

다. 다과상.

라. 연상.

2.3 두 나라의 테이블의 비교.

서로 다른 생활양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과 덴마크에는 기능과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다른 종류의 테이블이 발달되었다. 덴마크의 테이블은 의자식 생활양식에 맞게 발달된 반면, 한국의 테이블은 좌식 생활양식에 맞게 발달되어 생활양식이 가구의 디자인과 형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가를 증명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중요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덴마크에서는 공간절약을 위한 다양한 테이블 종류가 발달된 반면, 한국에서는 작고 이동하기 쉬운 몇 종류의 테이블 만이 발달되었다. 덴마크에서는 테이블이 농가의 거실이나 식당에서 고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배치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랑방에서 쓰이는 아주 작은 크기의 책상과 연상 이

외에는 테이블은 상설 배치되지 않고 언제나 쓰고 나면 곧 치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가구 사용 방법의 차이는 아마도 두 나라의 전통 주택에서 주요 거실이 다목적 용도로 쓰인 것은 공통적이었으나, 덴마크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테이블을 상설 배치했기 때문에, 다목적의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히 융통성있는 공간 절약용의 다양한 테이블이 발달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덴마크 농가의 전통주택에서는, 특히 춥고 긴 겨울 동안에는 주요 거실 하나에서 온 가족은 물론 동물들까지도 함께 취침, 식사, 기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의자식 생활이면서도 공간의 융통성있는 활용이 많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주택의 방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덴마크의 방에 비해 더 작았고 좌식 생활양식이라서 여러가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방바닥을 언제나 비워 두어야 하였기 때문에 가구를 사용한 후에 치우는 방법이 통용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대부분 덴마크의 테이블이 그 위에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이고 크고 무거웠던데 비하여, 한국의 테이블은 사용한 후에 쉽게 치울 수 있도록 작고 가벼웠고, 다목적으로 쓰이기 보다는 한가지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상례였다. 한국 식탁 중에서도 특히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있게 고안된 식탁(공고상)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한국의 이동식 테이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었다.

둘째로, 디자인과 장식에 있어서도 두 나라 사이에 차이가 많았다. 한국의 테이블이 덴마크의 것에 비하여 조각이나 옷칠 등을 사용하여 보다 더 장식적이었다. 한국의 테이블이 기능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장식적인 요소에도 치중한 반면, 덴마크의 테이블은 장식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에 보다 더 치중한 것이 특징이었다.

셋째로, 마감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는 한국 테이블의 상판에는 투명한 옷칠이나 식물성 기름을 칠한데 비하여 덴마크에서는 마감처리하지 않은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돌로 된 테이블 상판은 자연석이 많은 덴마크의 본홀름(Bornholm) 지방의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두 나라에서 모두 흔하지 않았다.

넷째로 테이블의 다리 디자인에 있어서 덴마크에서

는 트레슬 다리(trestle leg), 크로스 다리(cross leg), 게이트 다리(gate leg)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다리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가지 공통적인 요소는 테이블의 다리 디자인에서 두 나라에서 모두 동물의 다리 모양을 사용한 것으로, 물론 동물의 다리를 테이블의 다리 디자인에 사용한 것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사자, 고양이, 호랑이, 개, 독수리 등과 같은 서로 유사한 동물의 다리 모양을 두 나라에서 모두 사용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3.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나라 사이의 민속 테이블 가구에서는 서로 공통적인 요소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 것은 가구 디자인이 생활양식과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의 비교 연구를 하면서 깊이 이해 할 수 있었던 점은 인간이 비록 서로 문화적 교류가 적은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해 왔더라도 주택이나, 가구, 또는 생활도구를 통하여 자기들의 예술적인 욕구를 표현하려는 갈망은 항상 같았으며, 또한 자기들의 환경과 생활에 정말로 소용되는 슬직하고 충실한 가구를 발달시켜왔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양국의 가구를 비교하면서, 의자와 침대는 의자식생활을 하는 덴마크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 종류도 많아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좌식생활로 인하여 거의 그 종류가 없어서 양국의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다음 번의 연구 시리즈로 수납가구와 기타가구의 비교 연구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빛깔있는 책들 159, 대원사, 1994
- 나선화, 소반, 빛깔있는 책들 101-3, 대원사, 1989
-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상, 하), 열화당 미술선서 41, 열화당, 1986
- Bokcha Yoon, Soon Chi, Youngsoon Park, Korean Furniture and Culture, Shinkwang Publishing Co. Seoul, Korea, 1988
- Chun, Byung-Ok, Decorative Designs in the Houses of Chosun Dynasty Period, Po Chin Chai Publishing Co. Inc., Seoul Korea, 1988
- Friss, Lars, Gamlemobler, Natioalmuseet, Kobenhavn, 1976
- Harrison, M, People and Furniture. A Social Background to the English Home, London, Benn, 1971
- Lucie-Smith, Edward, Furniture, A Concise History,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3
- Mckillop, Beth, Korean Arts and Design, The Sam Sung Gallerly of Korean Art, Victoria and Albert Museum, Great Britain, 1992
- Michelsen, Peter, Frilands Museet ved Sorgenfri, Natioalmuseet, Kobenhavn, 1975
- Rasmussen, Holger, Dansk bondekultur for 1900, Vejleder til Nationalmuseets danske bondesamling, Nationalmuseet, Kobenhavn, 1979
- Steenberg, Axel and Lerche, Girth, Danske Bondemobler-Danish Peasant Furniture Bind 1,2,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Kobenhavn, 1989
- Steenberg, Axel, Danske Bondmobler, Alfr. G. Hassings Forlag, Kobenhavn, MCMXLIX
- Uldall, Kai, Dansk Folkekunst, Thaning and Apples Forlag, Kobenhavn, 1963
- Waagepetersen, Christian, Danske Mobler for 1848, Forum, Kobenhavn, 1980

